

한국 梁氏의 선대계보

고려 시대 이전 한국 양씨(梁氏)의 선대계보는 양씨세기(梁氏世記)와 중국으로부터 전래한 계보에 등록되어 있다. 양씨세기(梁氏世記)는 제주·남원 최초의 합본인 병인보(1686년)에 수록되었고 중국으로부터 전래한 계보는 설송공(雪松公) 양극선(梁克選)이 명나라 희종이 등극할 때(1622년) 명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사신을 맞이하는 명나라의 접반사(接伴使) 양좌휘(梁佐輝)가 전승한 계보를 연행일지인 조천록(朝天錄)에 수록했는데 제주·남원 두 번째 합본인 무진보(1748년)를 편찬할 때 접반사(接伴使) 양좌휘(梁佐輝)가 전승한 계보를 수록했다. 신해보(1791년)를 편찬할 때도 양좌휘(梁佐輝)가 전승한 계보를 수록했는데 무진보(1748년)에 등록한 내용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족보를 편찬하는 과정에 조천록(朝天錄)에 수록된 계보를 완벽하게 필사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양좌휘(梁佐輝)가 전승한 계보와 양씨세기(梁氏世記)에 등록된 계보가 상당 부분 일치하므로 한국과 중국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전승된 자료라면 고려 시대 이전의 한국 梁氏의 선대계보는 신뢰할 수 있다. 그러나 양좌휘(梁佐輝)가 전승한 계보에는 고려 후기의 인물로 알려진 용성군 양주운(梁朱雲)이 고려 초기의 인물인 병부공 양능양(梁能讓)의 종조부(從祖父)로 등록되었기 때문에 기미보(1799년)를 편찬할 때는 외국의 문적은 믿을 수 없다고 평가했고 신유년(1801년)에는 병부공의 후예 양세노(梁世老)가 예조에 소장을 올려서 양좌휘(梁佐輝)가 전승한 계보를 잘못된 계보로 판결받았다. 그리하여 양좌휘(梁佐輝)가 전승하고 양극선(梁克選)이 전래한 한국 양씨(梁氏)의 선대계보는 일부 계파(系派)의 파보(派譜)를 통해서만 전승되었다. 그러나 명나라의 접반사(接伴使) 양좌휘(梁佐輝)가 전승한 계보이므로 한국 양씨(梁氏)의 선대계보가 중국에 전래된 과정을 고찰(考察)해 보아야 할 것이다.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서 한국 양씨(梁氏)의 선대계보가 중국으로 전래된 과정을 발견하게 된다면 양좌휘(梁佐輝)가 전승한 계보의 신뢰도는 재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무진보(1748년)에 수록된 명나라 접반사(接伴使) 양좌휘(梁佐輝)가 전승한 계보와 신해보(1791년)에 수록된 명나라 접반사(接伴使) 양좌휘(梁佐輝)가 전승한 계보를 검토하고 양씨세기(梁氏世記)에 등록된 계보와 비교하면서 한국 양씨(梁氏)의 선대계보를 고찰(考察)해 보는 새로운 장이 마련되기를 희망해 본다.

籍南原	梁氏大族譜 雪松公諱 鼻祖良乙那 始生于漢拏 山神泉王耽 羅配海東王 女事迹昭載 輿地勝覺 台翼 平章事稟元 之日星光翼 照房中故曰 名曰○○
◀ 梁氏大族譜卷之八	卷之八 克選入朝 ○後世寶瑗 唐太宗東征 時由耽羅王 世子質于中 國十年後始 返東方與其 弟寶瑤仕于 新羅 子祖漢 太子正尹 子祖于 太子正尹 子祖光 太子正尹世 謂三尹
龍城君兵部郎中世系	皇明時勝來 子自瀛 初名自永有 功王室賜籍 南原改名自 瀛官止侍閣 子孫自此以 南原爲姓貫 子行理 襲封龍南侯
一	世系 ○後世遠 錦城君自上 祖諱寶瑗至 此中間世系 失于紅巾賊 于兵燹 子大述 侍中封龍城 君做乾坤會 數錄五卷失 子成瀚 判尚書
◀	子台翼 子泳宅

卓英	詠宅襲封南原君諡懿愍公此以上世系失亂未詳壬戌余以天啓登極使書狀官柳應元遞代入朝皇明時與餉使郎梁佐輝相敘以同宗之分而曰語及先系記得此本蓋繼先異事也昭載朝天錄別紙										
子堅	子百兼	國士	子朱雲	贊化功臣襲封龍城君號三江	조선 초기에는 고려 후기 인물 용성군을 고려 초기 인물 병부공의 종조부로 등록하여 틀린 계보로 판단함					子茁	號無心道人
子利升	子萃	郎中	子能大	將力鳴世西湖有將軍墓云	子伯奎	郎中	子仲奎	文科郎中	子季奎	子衷立	
子唐就	子得璜	國子進士	子得謙	以遠慰使入中國始仕官吏部尚書	子冠英	始仕中國吏部尚書子孫世居洛陽云餉使禮部郎佐輝甫於此爲九代孫云	子卓英	吏部侍郎	子俊		

	梁雪松勝來中國世系 雪松公諱克選入 後孫不出其後平昌 始祖良乙那 始生于漢羅山神泉王耽配海東王女 台翼 平章事
子祖于 太子正尹 子祖光	○後世寶瑗 唐太宗東征時質于中國十年後返任新羅 子祖漢 太子正尹
	皇明時勝來世系 子自瀛 初名自永官至侍閣有功王室賜籍南原 子行理 左平章南原君
	○後世遠 文科錦城君 子忠 領議政文敬公
一	子大述 文科龍城君做河洛演書數錄五卷失乾坤會數錄 子有五 侍中元朝封五千戶麗朝南川伯
子成瀚	子台翼 使皇明得此佐輝來云而其信不爲入錄矣附此以備後攷

	成瀚 判尚書南溪君 得謙 中國吏部尚書
太子正尹	子宜宅 文參順 子相宅 文參順 子乃宅 文參順 子玉宅 文參順 子泳宅 文參順 南原君懿愍公 子冠英 任中國吏部尚書居洛陽
	子百兼 國士 子朱雲 龍城君
	子茁 號無心道人 子萃 郎中
	子能讓 弟能大 子伯奎 郎中 配王琳女 子仲奎 郎中 子季奎
	子得謙 子得璜

설송공(雪松公) 양극선(梁克選)이 명나라 희종이 등극할 (1622년)때 중국에 사신으로 갔다가 낙양에서 향사랑(餉使郎) 양좌휘(梁佐輝)와 서로 이야기(相敘)하다가 以 동종에서 나누어졌다는 말(同宗之分而回語)과 及 선계의 기록을 얻었다(先系記得) 此 같은 근본을 선대가 계승했으니(本蓋繼先) 기이한 일이었다.(異事也) 그리하여 사신의 연행일지인 조천록 별지에 실었다(昭載朝天錄別紙). 이와 같은 내용이 무진보(1748년)에 등록되었으나 무진보(1748년)에 등록된 양극선(梁克選)이 전승한 계보가 잘못된 계보라는 내용을 기미보(1799년)부터 수록했는데 **외국(外國)의 문적(文籍)은 믿을 수 없는 구절이다(不可準信者也)**라고 결론을 내렸다. 중국인 양좌휘(梁佐輝)가 전승한 계보에는 고려 후기의 인물로 알려진 용성군 양주운(梁朱雲)이 고려 초기의 인물로 알려진 병부공 양능양(梁能讓)의 종조부(從祖父)로 등록되었다. 그리하여 조선시대에는 잘못된 계보로 결론을 내렸지만 중국인 양좌휘(梁佐輝)가 전승한 계보는 양씨세기(梁氏世紀)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양씨세기(梁氏世紀)와 일치하는 계보가 중국에 전승되고 있는 이유를 주목하지 않았고 오히려 양좌휘(梁佐輝)가 전승한 계보를 믿을 수 없는 계보로 결론을 내리면서 양씨세기(梁氏世紀)마저도 주목하지 않았다. 양좌휘(梁佐輝)가 전승한 계보를 조선에 전래한 양극선(梁克選)과 전래한 계보를 인용한 양주익(梁周翊)은 대과에 급제한 관료이며 남원양씨 병부공과 용성군의 계보를 잘 알고 있는 학자였다. 고려 후기의 인물로 알려진 용성군 양주운(梁朱雲)이 고려 초기의 인물인 병부공 양능양(梁能讓)의 종조부(從祖父)가 될 수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중국인 양좌휘(梁佐輝)가 전승한 계보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중국인 양좌휘(梁佐輝)가 전승한 계보는 신해보(1791년)를 편찬할 때도 그대로 인용했고 정조 임금이 임진왜란의 의병장 양대박(梁大樸)의 문집인 청계집을 간행하게 할 때(1796년) 후손 양주익(梁周翊)이 중국인 양좌휘(梁佐輝)가 전승한 계보를 청계집에 수록하여 진상하였다. 그리하여 기미보(1799년)를 편찬할 때 문제를 제기하였고 신유년(1801년)에 병부공의 후예 양세노(梁世老)가 예조에 소장을 올려서 문제를 제기했고 그 내용이 무진보(1808년)에 수록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우리(我) 양(梁)씨는 동방의 종족(是東方之族)으로 동방인이 모르는 인물을(則東人所不知者) 중국인(中朝人)이 어찌 들어서 알 수 있겠는가(何從以得也) 그(其) 후인(爲後人)이 속인 것(誣妄)이 분명하다(不亦明甚乎).** 조선시대에는 중국인 양좌휘(梁佐輝)에게 속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한국 양씨의 계보가 중국에 전승된 과정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남원양씨 병부공파의 기세조(起世祖)는 양능양(梁能讓)이며 능양(能讓)이 득겸(得謙)을 낳고 득겸(得謙)이 득황(得璜)을 낳았다. 그런데 양좌휘(梁佐輝)가 전승한 계보는 득겸(得謙)과 득황(得璜)은 부자 관계가 아니라 형제 관계이며 득황(得璜)의 자손은 한국인이 되었고 득겸(得謙)의 자손은 중국인이 되었는데 양좌휘(梁佐輝)가 득겸(得謙)의 후손이기 때문에 한국 양씨와 동일한 선대의 계보를 전승하고 있었다고 전하고 있다. 병부공 양능양(梁能讓)의 자손이 중국인이 되었을 가능성은 병부공파의 선대외조부 왕림(王琳)의 행적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선대외조부 왕림(王琳)을 태조 왕건의 손자로 알고 있지만 선대외조부 왕림(王琳)은 중국인이다. 문양공 양성지의 눌제집에 수록된 세보실전기(世寶失傳記)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선조(先祖) 병부시랑(兵部侍郎)은 고려 좌복야 왕림의 따님과 결혼했다(娶高麗左僕射王琳之女) 왕공(王公)께서 以 송나라 빈공과에 급제하고(貢士登宋賓貢科) 以是 중국 조종으로부터 많은 보화를 받고 오셨다(見待於中朝多得奇貨來) 우리(吾) 선조(先) 병부의랑(兵部議郎) 득황(得璜) 공(公)은 以 왕가(王家)의 외손(外孫)으로 亦 옥자사, 금주미, 타선정 등을 전해 받으셨다(得玉獅子金塵尾駝仙亭等物)

고려사에 빈공과에 급제한 왕림(王琳)과 비슷한 시대에 좌복야를 지낸 태조 왕건의 손자 왕림(王琳)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문양공 양성지는 동일인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었지만 빈공과에 급제한 왕림(王琳)은 중국인이고 좌복야를 지낸 왕림(王琳)은 태조 왕건의 손자이며 다른 인물이다. 고려사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고려사 세가

효은태자(孝隱太子)는 사서(史書)에서 그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혹 동양군(東陽君)이라고도 부른다. 성품이 험하고 어그러진 데다 군소(群小)들과 사귀면서 반역할 뜻[異圖]을 몰래 품자 광종(光宗)이 사사(賜死)하였다. 아들은 왕림(王琳)·왕정(王禎)으로, 효은태자가 죽자 왕림과 왕정은 어렸으므로 죽음을 면하고 도망쳐 숨어살면서 백성들 사이에서 근근이 입에 풀칠하고 지냈다. 강조(康兆)가 정권을 잡게 되자, <임금에게> 아뢰어 왕림과 왕정에게 작위(爵位)를 주고 노비(奴婢)와 전장(田莊)도 주었으며 종적(宗籍)에도 소속시켜 주었다. 왕림은 상서좌복야(尙書左伏射)로 죽었고, 왕정은 태자첨사 상경거도위(太子詹事 上輕車都尉)를 지내다가 현종 3년(1012)에 죽으니, 시호(諡號)를 온결(溫潔)이라 하였고, 공부상서(工部尙書)를 추증(追贈)하였다.

고려사 세가

〈경종(景宗)〉 5년(980) 최한(崔罕)과 왕림(王琳)을 송(宋)에 파견하여 〈국자감(國子監)에〉 입학시켰는데, 〈경종〉 11년(986)에 최한과 왕림이 빈공과(賓貢科)에 급제하여 비서랑(秘書郎)을 제수(除授)받았다.

광종의 재위가 949년에서 975년까지이고 그 때 효은태자의 아들인 왕림(王琳)은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986년에 송나라 빈공과에 급제한 왕림(王琳)과는 비슷한 연령이다. 그러나 1009년 강조의 정변으로 목종이 폐위되고 현종이 즉위한 이후에 효은태자의 아들인 왕림(王琳)과 왕정(王禎)에게 작위를 돌려주었다고 기록되었으므로 986년 송나라 빈공과에 급제한 왕림(王琳)은 효은태자의 아들 왕림(王琳)과는 다른 인물이다. 송사(宋史)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송사 열전

986년 10월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고 또 고려의 학생(學生) 최한(崔罕)과 왕빈(王彬)을 보내 국자감(國子監)에서 학업을 익히게 하였다.

고려사 절요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고려사 절요

992년 최한(崔罕)과 왕림(王琳)이 송(宋)의 빈공과(賓貢科)에 급제하여 비서랑(秘書郎) 벼슬을 제수 받고 돌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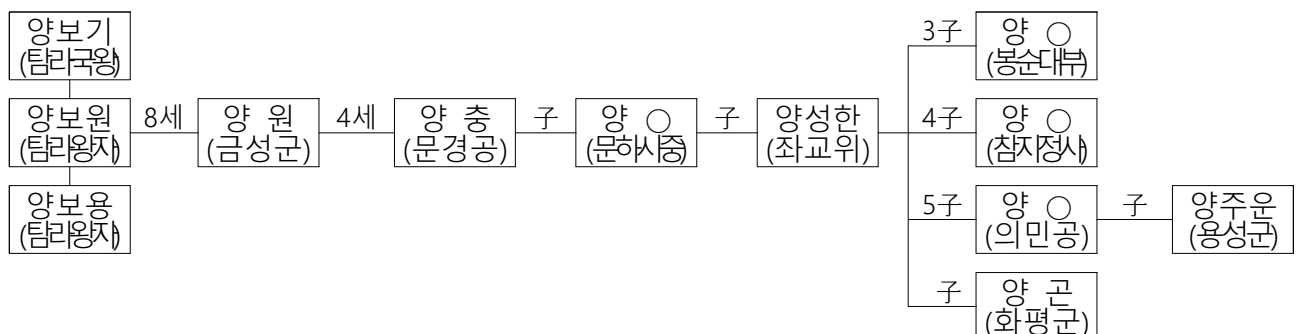
고려사 절요에는 왕림(王琳)으로 기록되었고 송사(宋史)에는 왕빈(王彬)으로 기록되었지만 동일인이다. 즉 왕림(王琳)은 빈공과에 급제하고 992년에 다시 고려로 돌아왔는데 송사(宋史)에는 왕림(王琳)을 왕빈(王彬)으로 기록하였다. 송사(宋史)에는 왕빈전(王彬傳)이 있을 만큼 병부공파의 선대외조부 왕림(왕빈)은 중국에서 위상이 높았다.

송사 왕빈전

[宋史 王彬傳] 왕빈(王彬)은 광주(光州)의 고시(固始)현 사람(人)이다. 조부(祖)의 이름은 언영(彦英)이고 아버지(父)의 이름은 인간(仁侃)이다. 집안사람(族人)인 왕조(王潮)를 따라서 민(閩)지역으로 들어갔다. 왕조(王潮)는 민(閩)지역의 세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왕언영(王彦英)이 일처리를 꽤 잘하자 왕조(王潮)는 후에 세력을 핏 박할까 두려워 몰래 그를 해치려하였다. 왕언영(王彦英)은 그것을 알고 가족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 신라(新羅)로 달아났다. 신라(新羅)에서는 그의 재주를 매우 아끼어 중용하였다. 두 부자는 서로 계속하여 국정(國政)을 집행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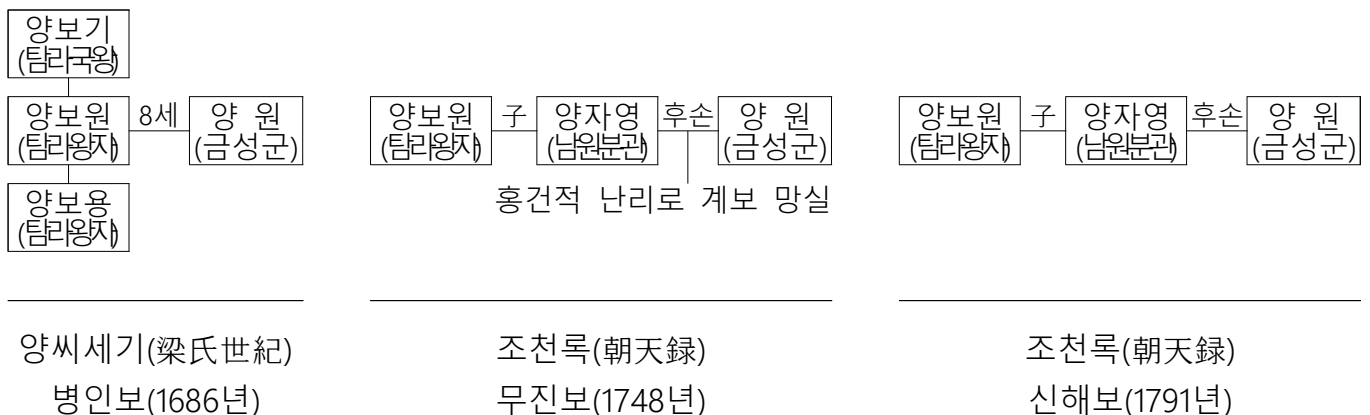
당나라가 망하고 송나라가 건국되기 전에 “후량-후당-후진-후한-후주”의 5대와 남쪽에 10개 나라(5대10국)가 있었는데 그중에 남쪽의 민(閩)나라는 광주(光州) 고시(固始)현 출신인 왕조(王潮) 3형제가 이주하여 세운 나라이다. 병부공파의 선대외조부 왕빈(王彬) 또한 중국 광주(光州) 고시(固始)현의 왕씨(王氏)였다. 왕빈(王彬)의 할아버지 왕언영(王彦英)은 고시(固始)현 왕씨(王氏) 집안사람(族人)들게게 인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왕조(王潮)가 핍박하여 후삼국 시대에 신라로 망명했다. 그리하여 왕빈(王彬)은 고려인의 자격으로 송나라 빈공과에 급제하고 고려로 귀국했지만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다. 송나라로 돌아간 왕빈(王彬)은 관직 생활을 투명하게 하고 명성이 알려져서 송사(宋史)에 왕빈전(王彬傳)이 등록되었다. 송사(宋史)를 통해서 왕빈(王彬)이 젊은 시절부터 송나라의 관료를 지냈고 딸의 결혼 적령기에도 송나라에서 관직 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왕빈(王彬)의 딸이 송나라에서 혼례를 올렸을 것으로 추론되지만 왕빈(王彬)의 아버지 왕인간(王仁侃)과 할아버지 왕언영(王彦英)이 고려에 잔류하고 왕빈(王彬)의 딸이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인맥으로 고려에서 혼례를 올렸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왕빈(王彬)의 딸이 고려에서 혼례를 올렸다고 해도 왕빈(王彬)이 송나라에 정착했기 때문에 딸과 외손자를 중국으로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왕빈(王彬)의 외손자는 송나라에 정착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춘 고려인이었다. 왕빈(王彬)은 제사와 시호를 내리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인 태상시(太常寺)에서 두 번째 관직인 소경(少卿)을 지냈고 낙양에서 발견된 손녀의 묘지명에 의하면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까지 올랐다. 왕빈(王彬)의 아들 왕종망(王宗望)은 공부(工部)에서 두 번째 관직인 시랑(侍郎)을 역임하고 최고의 품계인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에 올랐다. 양능양(梁能讓)의 아들 양득겸(梁得謙)은 태상소경(太常少卿)을 지내고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에 오른 왕빈(王彬)이 외조부이었고 공부시랑(工部侍郎)을 지내고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에 오른 왕종망(王宗望)이 외삼촌이었으므로 어머니를 따라서 송나라에 들어가서 낙양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며 양성지의 놀제집에 수록된 세보실전기(世寶失傳記)를 다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왕공(王公)께서 이 송나라 빈공과에 급제하고(貢士登宋寶貢科) 以是 중국 조종으로부터 많은 보화를 받고 오셨다(見待於中朝多得奇貨來) 우리(吾) 선조(先) 병부의랑(兵部議郎) 득황(得璜) 공(公)은 이 왕가(王家)의 외손(外孫)으로 亦 옥자사, 금주미, 타선정 등을 전해 받으셨다(得玉獅子金麈尾駝仙亭等物)

병부공파 선대외조부 왕림(왕빈)은 외손자인 양득겸(梁得謙)에게 보물을 가보로 전해주지 않았고 외증손자인 양득황(梁得璜)에게 보물을 가보로 전해주었다. 외손자가 아닌 외증손자에게 가보를 전승하는 경우는 특이한 경우이다. 만약 양극선(梁克選)이 전승한 계보가 사실이라면 아래와 같이 해석된다. 왕림(왕빈)에게는 외손자가 둘인데 외손자 양득겸(梁得謙)은 중국에 정착하고 외손자 양득황(梁得璜)은 고려에 정착했다. 왕림(왕빈)은 고려에 정착한 외손자 양득황(梁得璜)과 이별하게 되어서 소중한 가보를 선물로 준 것이다. 그리하여 빈공과에 급제한 외조부 왕림(왕빈)이 선물로 준 보화를 집안의 가보로 전승하게 된 것이다. 왕림(왕빈)의 딸이 중국에서 혼례를 치렀다면 왕림의 외손자가 중국에 정착한 것은 당연할 것이다. 고려에서 혼례를 치렀다고 해도 외조부, 외삼촌, 외사촌이 모두 송나라에서 인정받는 관료이었기 때문에 송나라로 이주하였을 수도 있을 것이다. 설송공(雪松公) 양극선(梁克選)이 명나라 희종이 등극할(1622년)때 중국에 사신으로 갔다가 낙양에서 조선의 사신을 접대하는 명나라 접반사(接伴使) 양좌휘(梁佐輝)를 만났는데 양좌휘(梁佐輝)가 양득겸(梁得謙)의 후손이기 때문에 한국 양씨의 선대계보를 전승하고 있었다고 전하고 있고 그 내용을 양극선(梁克選)이 필사해서 사신의 여행일지인 조천록 별지에 실었다(昭載朝天錄別紙). 조천록(朝天錄) 별지(別紙)에 등록된 양좌휘(梁佐輝)가 전승한 계보는 무진보(1748년)와 신해보(1791년)에 수록되었으나 기미보(1799년)에서는 **외국(外國)의 문적(文籍)은 믿을 수 없는 구절이다(不可準信者也)**라고 기록하였고 무진보(1808년)에서는 **우리(我) 양(梁)씨는 동방의 종족(是東方之族)으로 동방인이 모르는 인물을(則東人所不知者) 중국인(中朝人)이 어찌 들어서 알 수 있겠는가(何從以得也) 그(其) 후인(爲後人)이 속인 것(誣妄)이 분명하다(不亦明甚乎)** 라고 기록하였다. 병부공파의 선대 외가가 송나라에서 명망 있는 관료 집안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다른 판단을 하였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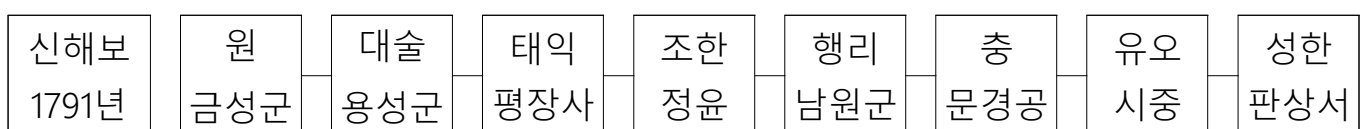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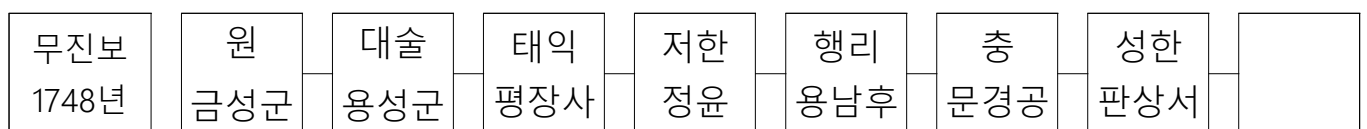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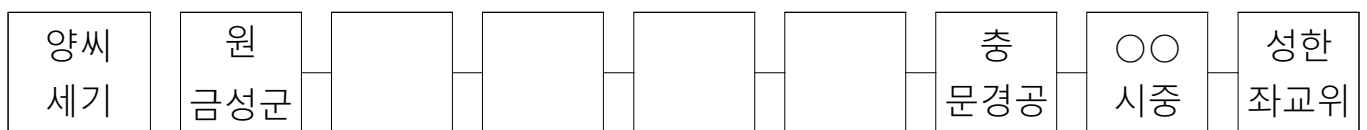


양씨세기(梁氏世紀)에 등록된 남원양씨 계보

무진보(1748년)에 수록된 금성군(錦城君) 양원(梁遠)의 방주(傍註)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錦城君自上祖諱寶瑗至此中間世系失于紅巾賊” 금성군(錦城君)의 선대 조상(自上祖)의 휘(諱) 보원으로부터 중간 세계는 홍건적의 난리로 잃어버렸다[寶瑗至此中間世系失于紅巾賊] 양씨세기(梁氏世紀)에는 탐라왕자 양보원(梁寶瑗)이 660년경에 고구려 관직에 출사했고 8세를 지나 금성군(錦城君) 양원(梁遠)이라고 기록되었는데 무진보(1748년)에는 탐라왕자 양보원(梁寶瑗)이 신라에 정착하고 그 아들 양자영(梁自瀛)이 왕실에 공을 세워(有功王室) 남원을 사적받고(賜籍南原) 남원을 본관으로 삼았다(南原爲姓貫)고 기록되었다. 신라는 당나라와 연합하여 668년에 고구려를 멸망시켰고 그 이후 당나라가 신라를 집어삼키려고 하자 신라는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을 지원하여 당나라를 몰아냈다. 당나라를 몰아낸 이후에는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을 분산 배치하면서 685년에 남원이라는 도시가 만들어졌다. 탐라왕자 양보원(梁寶瑗)이 고구려 관직에 출사한 것은 고구려 멸망 시기이므로 고구려 부흥운동의 지도자가 된 것이고 양보원(梁寶瑗)이 신라에 정착하고 그 아들 양자영(梁自瀛)이 왕실에 공을 세운 시기는 당나라를 몰아낸 시기이며 남원을 사적받은(賜籍南原) 과정은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을 분산배치하면서 남원소경을 설치하는 과정이다. 양자영(梁自瀛)에 대한 기록은 문양공 양성지가 전승한 남원 분관시조(分貫始祖) 양우량(梁友諒)에 대한 기록이다. 두 기록이 모두 사실을 반영했다면 양우량(梁友諒)의 일명(一名)이 양자영(梁自瀛)이다. 양씨세기(梁氏世紀)에는 양보원(梁寶瑗) 이후 8세를 지나 양원(梁遠)이라고 기록했지만 무진보(1748년)에는 홍건적의 난리로 세보(世譜)를 실전해서 양원(梁遠)을 양자영(梁自瀛)의 후세(後世)라고만 기록하였다. 신해보(1791년)에도 양원(梁遠)을 양자영(梁自瀛)의 후세(後世)라고만 기록했지만 방주에는 “문과(文科) 금성군(錦城君)”의 내용만 등록되었다.



양씨세기(梁氏世紀)와 양좌휘(梁佐輝)가 전승한 계보가 모두 “[탐라국왕 양보기\(梁寶璣\)](#) 3형제와 [금성군\(錦城君\)](#) [양원\(梁遠\)](#) 사이의 계보가 단절된 것”이 동일하다. 고려 시대까지 중국에 있는 병부공의 후예들과 교류하였을 가능성도 있고 그리하여 전승된 계보가 일치할 수도 있었겠지만 선행 사료인 조천록(1622년)의 등록내용이 양씨세기(梁氏世紀)에 반영되어 병인보(1686년)에 수록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양씨세기(梁氏世紀)에는 양원(遠)은 금성군에 책봉되고(封錦城君) 4세를 지나(歷四世至) 문경공(文敬公) 양충(忠)이라고 기록되었고 무진보(1748년)에는“[양원\(梁遠\)](#)-[양대술\(梁大術\)](#)-[양태익\(梁台翼\)](#)-[양저한\(梁祖漢\)](#)-[양행리\(梁行理\)](#)-[양충\(梁忠\)](#)”이 등록되었고 양충(梁忠)의 시호(諡)를 문경(文景)으로 등록하였다. 양씨세기(梁氏世紀)에 등록된 시호(諡)는 문경(文敬)이다. 양씨세기(梁氏世紀)에 누락된 계보가 선행 사료인 양좌휘(梁佐輝)가 전승한 계보에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보면 양씨세기(梁氏世紀)는 조천록(1622년)을 참조하지 않았고 별도 전승된 계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양씨세기(梁氏世紀)에는 양충(忠) 그(其) 손(孫) 시중의 아들(侍中之子) 좌교위(左校尉) 성한(成漢)으로 기록되었다. “[忠其孫侍中之子左校尉成漢](#)” 양성한(梁成漢)이 양충(梁忠)의 손자로 해석되고 양성한(梁成漢)의 아버지가 시중(侍中)을 지낸 것으로 해석되지만 무진보(1748년)에는 양충(梁忠)이 시중(侍中)을 지냈고 양성한(梁成漢)을 아들로 등록하고 판상서(判尙書)를 지낸 것으로 등록하였다. 신해보(1749년)에는 문경공(文敬公) 양충(忠)의 아들 남천백(南川伯) 양유오(梁有五)는 시중(侍中)을 지냈고 판상서(判尙書)를 지낸 남계군(南溪君) 양성한(梁成漢)을 손자로 등록하였다. 양좌휘(梁佐輝)가 전승한 계보가 무진보(1748년)와 신해보(1749년)에 다른 내용으로 등록되었으므로 무진보(1748년)와 신해보(1749년)에 조천록(朝天錄)을 완벽하게 필사하여 등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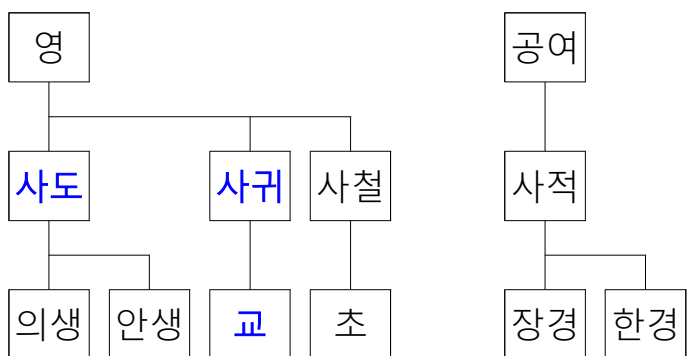
무진보(1748년)에 등록된 양좌휘(梁佐輝)가 전승한 계보 중에 씨족사에 전승된 내용과 맞지 않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용성군 양주운(梁朱雲)이 병부공 양능양(梁能讓)의 종조부(從祖父)라는 것과 ② 양득겸(梁得謙)과 양득항(梁得璜)이 부자 관계가 아니라 형제 관계라는 것과 ③ 남원 분관시조(分貫始祖)가 양자영(梁自瀛)이라는 것인데 이 중에 가장 맞지 않는 내용이 용성군 양주운(梁朱雲)이 병부공 양능양(梁能讓)의 종조부(從祖父)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중국에 사대했던 조선시대에도 양좌휘(梁佐輝)가 전승한 계보를 배척했다. 다만 용성군 양주운(梁朱雲)이 고려 후기에 삼별초를 평정한 공으로 공신에 녹훈되고 용성군에 책봉된 것인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고려사에는 삼별초를 평정하여 다음과 같이 포상되었다. [김방경\(金方慶\)을 시중\(侍中\)으로, 변윤\(邊胤\)을 판주밀원사\(判樞密院事\)로, 김석\(金錫\)을 상장군 지어사대사\(上將軍知御史臺事\)로, 나유\(羅裕\)와 송보연\(宋甫演\)을 각각 대장군\(大將軍\)으로 임명하였다.](#) 군(君)에 책봉되기 위해서는 정2품 이상의 관직에 올라야 하는데 삼별초를 평정하여 종3품 대장군에 포상된 기록도 등록되었는데 군(君)에 책봉된 공훈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양주운(梁朱雲)은 삼별초를 평정한 사건과는 다른 내용으로 용성군(龍城君)에 책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양좌휘(梁佐輝)가 전승한 계보에 의하면 금성군(錦城君) 양원(梁遠)의 선대계보를 알 수 없으므로 시대를 추정할 수 없는데 양씨세기(梁氏世紀)에 의하면 660년경에 활동한 탐라왕자 양보원(梁寶瑗)의 18세손이 양주운(梁朱雲)이므로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으면 용성군(龍城君) 양주운(梁朱雲)은 1200년경에 활동한 인물이 되는데 1273년 제주에서 삼별초를 평정한 시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양씨세기(梁氏世紀)에는 양보원(梁寶瑗) 이후 8세를 지나 양원(梁遠)이라고 등록되었고 양원(梁遠) 이후 4세를 지나 양충(忠)이라고 등록되었는데 중간에 계보를 전승하지 못 했는데 4세 후손인지, 8세 후손인지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오류이다. 따라서 금성군(錦城君) 양원(梁遠)의 선대계보를 알 수 없다고 등록한 조천록(1622년)의 자료가 타당해 보인다. 조선의 사신을 접대하는 명나라 접반사(接伴使) 양좌휘(梁佐輝)가 전승한 자료를 사신의 여행일지인 조천록(1622년)에 등록한 과정은 위조가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도 그 과정을 조작으로 보지 않았고 중국인은 한국 양씨의 계보를 알 수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명나라 접반사(接伴使) 양좌휘(梁佐輝)가 양득겸(梁得謙)의 후손이라고 주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아무것도 없고 송나라 관료 왕림(왕빈)의 외손인 병부공의 아들 양득겸(梁得謙)이 송나라로 이민을 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역사이다.

또한 양득황(梁得璜)이 집안의 가보로 전승한 보물이 왕림(왕빈)에게 선물로 받은 것이므로 양득황(梁得璜)을 왕림(왕빈)의 외증손자로 등록하지 않고 외손자로 등록한 계보가 더 타당해 보인다. 양득황(梁得璜)의 외조부인 왕림(왕빈)이 송사(宋史)에 왕빈전(王彬傳)으로 등록될 만큼 관료로 명망이 있었고 외삼촌과 외사촌이 모두 송나라의 고위 관료를 지낸 사실을 고려할 수 있었다면 명나라 접반사(接伴使) 양좌휘(梁佐輝)가 전승한 한국 양씨의 계보는 재평가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남원양씨 선대계보는 지금이라도 재평가해 보아야 할 것이다. 고려말 및 조선 초기의 남원양씨 선대계보는 다음과 같다



기미보(1799년) 편찬 이후 병부공파와 합본했던 대방군파는 현대에 와서 병부공파와 분리했지만 대사간을 지낸 양사귀의 여섯째 아들 군수공 양준의 자손들은 병부공파의 계보를 지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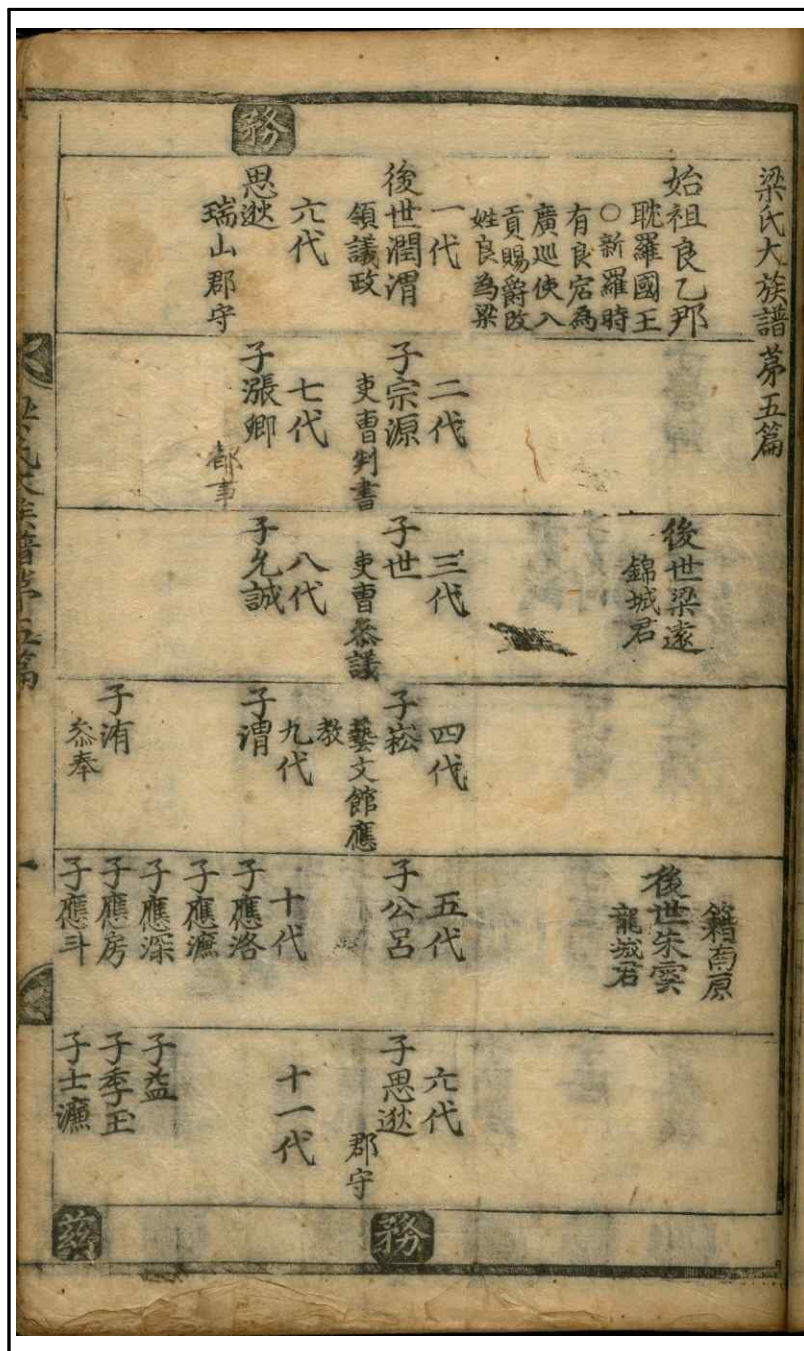
남원양씨 병부공파와 대방군파는 3대의 계보가 완벽하게 일치하므로 대방군파가 병부공파이거나 병부공파가 틀린 계보를 전승하였다. 그런데 용성군파에서도 이름과 관직이 일치하는 계보가 확인된다.



고려말, 조선초에 사대부로 성장한 남원양씨 중에 휘(諱)에 “思” 자를 사용한 자손이 계보에 혼선이 생겼는데 용성군의 자손 중에도 “사귀-교”의 2대는 병부공 및 대방군의 계보와 휘(諱)가 일치하고 있다.

양사귀의 자손은 “병부공파, 대방군파, 용성군파 3파에 모두 등록되었는데 이름만 같고 다른 인물인지, 동일인인데 후손이 잘 못 알고 다른 종파에 등록한 것인지 재검

토가 필요하다. 금성군(錦城君) 양원(梁遠)의 후손으로 등록한 최초의 종파는 남원양씨 장영공파이다. 장영공(章榮公) 양윤위(梁潤渭)는 제주,남원 최초의 합본인 병인보(1686년)에 금성군(錦城君) 양원(梁遠)의 후손으로 등록하였다.



始祖(시조) 良乙那(양을나)

改姓(개성) 梁 : 良宕(양탕)

後世(후세) 梁遠(양원)

錦城君(금성군)

後世(후세) 朱雲(주운)

龍城君(용성군)

後世(후세) 潤渭(윤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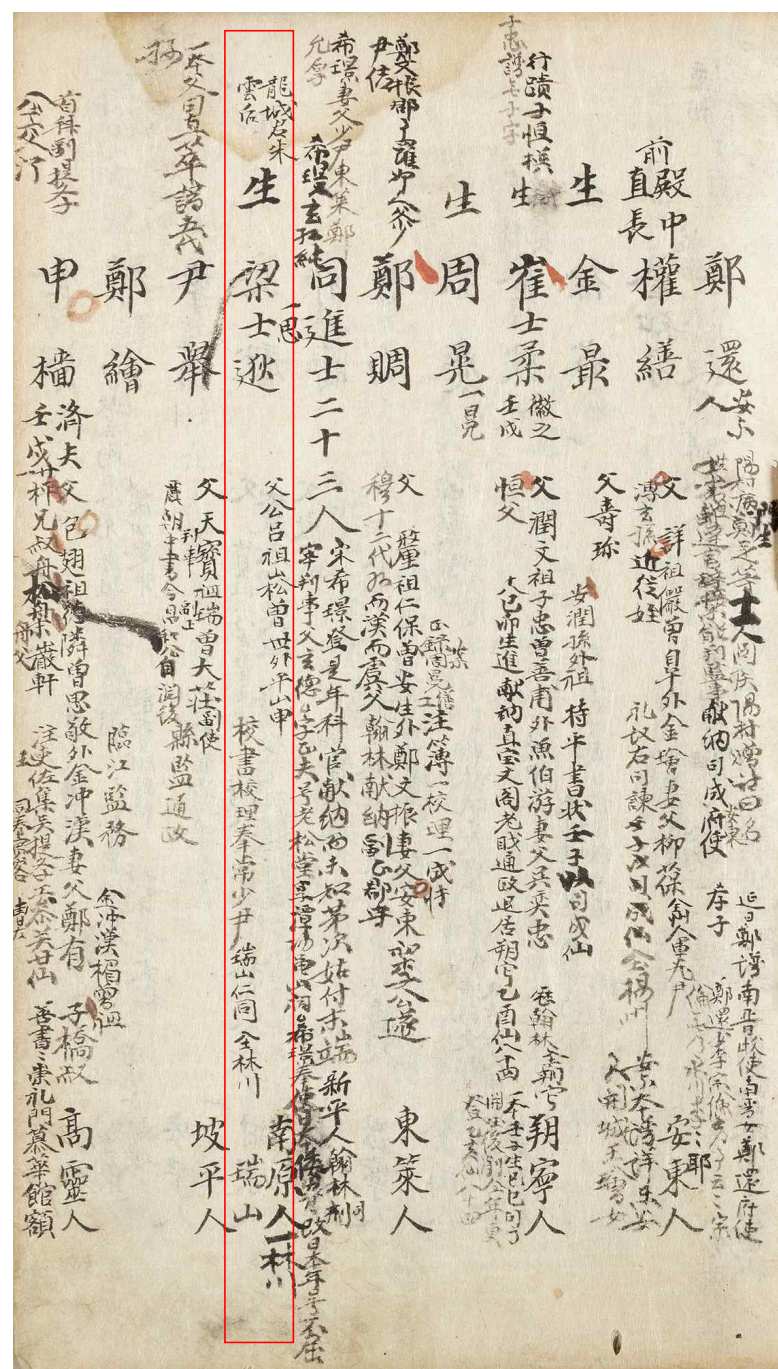
一代

領議政(영의정)

병인보(1686년)에 의하면 양윤위(梁潤渭)의 선조는 소목이 불분명하여 세대(世代)를 전할 수 없으므로 장영공(章榮公)의 후손들은 양윤위(梁潤渭)를 기세조(起世祖)로 등록하고 탐라국왕(耽羅國王) 양을나(良乙那)와 개성시조(改姓始祖) 양탕(梁宕)의 후손이

며 금성군(錦城君) 양원(梁遠)과 용성군(龍城君) 양주운(梁朱雲)의 후손(后)으로 등록하였다. 그런데 1402년에 문과에 급제한 양사적(梁思述)의 5대조가 양윤위(梁潤渭)이므로 1250년에서 1300년 사이에 활동한 인물인데 1273년 삼별초의 난을 진압한 양주운(梁朱雲)과는 시대가 겹친다. 형제 또는 아들 및 손자라면 계보를 누락하기 어려운 관계이므로 양윤위(梁潤渭)가 양주운(梁朱雲)의 후손(后)인지는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장영공(章榮公) 양윤위(梁潤渭)를 용성군(龍城君) 양주운(梁朱雲)의 손자로 등록할 때 검토한 과정은 용성군파 8세 양권(梁權)과 장영공파 6세 양사적(梁思述)이 활동한 시대가 겹치기 때문이다. 양사적(梁思述)은 1402년에 문과에 급제했고 양권(梁權)은 1401년에 문과에 급제했다. 그러나 용성군(龍城君) 양주운(梁朱雲)이 삼별초의 난을 평정했다면 노년은 아니었을 것이므로 삼별초의 난을 평정한 1273년과 양권(梁權)이 문과에 급제한 1401년과는 128년의 차이가 발생한다. 양주운(梁朱雲) 이후 7대를 지나 양권(梁權)이므로 7대 동안 모두 18세에 아들을 두어야 가능한 세대이다. 고려사에는 삼별초를 평정하여 종3품 대장군에 포상된 인물이 등록되었는데 정2품 이상인 용성군(龍城君)에 책봉된 양주운(梁朱雲)이 누락되었고 7세손 양권(梁權)과의 세대 차이도 맞지 않으므로 누락된 계보가 전승되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본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에 의하면 양사적(梁士述)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등록되었다. ① 용성군(龍城君) 양주운(梁朱雲)의 후손(后)이다. ② 또 다른 이름으로 양사적(梁思述)으로도 기록되었다. ③ 아버지(父)는 양공여(梁公呂)이고 ④ 할아버지(祖)는 양송(梁崧)이며 ⑤ 증조부(曾)는 양세(梁世)이다. ⑥ 외조부(外)는 평산신(平山申)씨이고 ⑦ 본관은 남원(南原人)이며 ⑧ 세거지는 임천(林川)이다. 도서를 관장하는 ⑨ 교서관(校書)에서 교리(校理)를 지냈는데 교리는 교서관의 실질적인 책임자이다. ⑩ 봉상시(奉常) 소윤(少尹)을 지냈고 ⑪ 서산(瑞山)과 ⑫ 인동(仁同)에서 지방관을 지냈고 ⑬ 묘소(塋)는 임천(林川)에 있다.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본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에 의하면 양사적(梁士述)의 정보가 13개 등록되었는데 그 중에 용성군(龍城君) 양주운(梁朱雲)의 후손(后)이라는 것이다. 장영공(章榮公) 양윤위(梁潤渭)가 활동한 시대와 삼별초가 활동한 시대가 겹치기 때문에 장영공(章榮公)이 용성군(龍城君)

의 후손이라면 용성군(龍城君) 양주운(梁朱雲)의 활동시대는 삼별초 활동 시대 이전 시대이다. 조선시대 장영공(章榮公)의 자손들은 용성군(龍城君)의 자손임을 지속적으로 밝혔는데 현대에 와서 고증해 보니 조선시대에는 용성군(龍城君)의 후손(後)이라는 기록만 전해졌고 확실한 계보가 등록된 자료가 전승되지 않았다.



- ① 龍城君(용성군)朱雲后
(주운후)
生○(생원) 梁士逖(양사적)
- ② 一思
- ③ 父(부) 公呂(공여)
- ④ 祖(조) 崧(송)
- ⑤ 曾○(증조) 世(세)
- ⑥ 外○(외조) 平山申(평산신)
- ⑦ 본관 : 南原人(남원인)
- ⑧ 林川
- ⑨ 校書校理(교서교리)
- ⑩ 奉常少尹(봉상소윤)
- ⑪ 瑞山(서산)
- ⑫ 仁同(인동)
- ⑬ 全(묘) 林川(임천)

장영공(章榮公)의 자손들은 용성군(龍城君)의 후손(後)이라고 전승한 조선시대 사료들

재검토하고 양윤위(梁潤渭)를 기세조(起世祖)로 하는 장영공파(章榮公派)의 종파(宗派)가 세워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명나라의 접반사(接伴使) 양좌휘(梁佐輝)가 전승한 계보를 고려하면 금성군(錦城君) 양원(梁遠)과 용성군(龍城君) 양주운(梁朱雲)의 후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금성군(錦城君) 양원(梁遠)은 양씨세기(梁氏世紀)와 양좌휘(梁佐輝)가 전승한 계보와 장영공파(章榮公派)의 선대계보에 등록되었다.

송사 왕빈전

王彬，光州固始人。祖彥英，父仁侃，從其族人潮入閩。潮有閩土，彥英頗用事，潮惡其逼，陰欲圖之。彥英覺之，挈家浮海奔新羅。新羅長愛其材，用之，父子相繼執國政。彬年十八，以賓貢入太學。淳化三年，進士及第，曆雍丘尉。皇城司陰遣人下畿縣刺史，多厲民，令佐至與為賓主。彬至，捕鞠之，得所受賂，致之法，自是詔親事官毋得出都城。易右班殿直，辭不受。後以秘書省著作佐郎通判筠州，曆知撫州。撫州民李甲、饒英恃財武斷鄉曲，縣莫能製。甲從子詈縣令，人告甲語斥乘輿。彬按治之，索其家得所藏兵械，又得服器有龍鳳飾，甲坐大逆棄市。並按英嗜強取人孥，配嶺南，州裏肅然。擢提點荊湖南路刑獄，徙知潭州，入判三司戶部勾院，出為京西轉運使，徙河北。部吏馬崇正倚章獻太后姻家豪橫不法，彬發其奸贓，下吏。忤太後意，徙京東，又徙河東、陝西。複為三司鹽鐵判官，判都理欠、憑由司，累遷太常少卿，卒